

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마사 왕 다리오 제이년까지 중단되니라 에스라 5장에는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다. 중지되고 있던 성전재건은 선지자 학개와 스기라 선지자들의 권면과 꾸지람을 통해서 다시 시작되었다. 그러자 에스라 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페르시아의 총독 닷드내와 공무원들이 성전재건을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 왕에게 아뢰고 그 답장을 기다렸다. 에스라서 5장 6절에서 17절을 보면 총독 '닷드내는 다리오 왕에게 보낸 조서에서 성전을 재건하게 된 과정을 바르게 설명하고, 고레스 왕이 과거에 조서를 내렸는지 그 자료를 찾아보도록 부탁을 하였다. 에스라 5장 17절이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전각에서 조사하라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RUTC성전을 건축하려하면 페르시아의 총독 닷드내와 같은 적국의 고급공무원들도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결국 BC.516년에 성전이 파괴 된지 7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되었다. 에스라 6장 15절 말씀에 보면 '다리오 왕 제육년 아달월 삼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후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성전을 보호할 성벽과 성문이 부서져 있었다. 이것을 성벽과 성문을 수리한 사람이 느헤미야였다. 이제 외형적인 것은 회복되었지만 예배와 말씀과 복음적인 삶과 같은 내적인 부분들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러한 말씀과 예배와 성도의 삶에 대한 갱신을 촉구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 후, 이스라엘 민족은 수 천년동안 에스라가 정리해 놓은 말씀을 붙잡고 지금도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안타깝게도 아직도 그 성전이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가 참된 성전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성전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에스라가 전하고자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무리 성전의 건물이 완성되어도 말씀과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지 못하면 그 성전건물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다.

3. 세 번째로 에스라는 구약성경 전체와 복음말씀을 정리하였고 스스로 말씀성취의 증인이 되었다. 이것은 Nobody, 재창조의 응답이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에스라는 완성하였던 것이다.

(1)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정리하였을 뿐 아니라 스스로 실천하였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이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것이 다락방이고 지교회이다. 여러분이 다락방과 지교회에서 답을 주려면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 강단메시지의 우등생이 되어야한다. 강단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중심은 그리스도의 복음, 진도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에스라도 말씀을 정리한 것이다. 이것은 영적서밋들의 당연한 미션이고 실천해야 할 언약의 여정이다. 에스라는 전도신학박사라고 볼 수 있다.

(2) 에스라는 말씀성취의 증인이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의 왕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복음이 체질화된 복음엘리트였다. 어느 정도냐면, 아다사스다 왕이 성전재건에 필요한 은금과 모든 재정을 허락할 정도였다. 에스라서 7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다함께 보겠다. 이 내용을 보면 아다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알 수 있다.

① 에스라 7장 12절이다. '모든 왕의 왕 아다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왕 아다사스다가 에스라를 인정한 것이다.

② 에스라 7장 13절이다.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인력을 다 제공했다.

③ 에스라 7장 14절이다.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대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④ 에스라 7장 15절이다.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⑤ 에스라 7장 16절이다. '또 네가 바벨론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백성들도 헌금하는 것이다.

⑥ 에스라 7장 17절이다.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과 그 소제와 그 전체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네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피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다.

⑦ 에스라 7장 18절이다.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그리스도인들은 형제, 자매를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⑧ 에스라 7장 19절이다. '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네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⑨ 에스라 7장 20절이다. '그 외에도 네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에스라는 복음의 말씀만 연구하고 정리했는데 그 결과 페르시아 왕에게 임한 사탄의 세력이 꺾이고 오히려 그 왕이 복음을 이해하고 성전재건의 주역으로까지 쓰임 받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이 에스라가 받은 '응답의 현장'이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 응답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

(3) 에스라는 참 복음을 깨달았다. 에스라서 9장과 10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먼저 온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 이방결혼을 하여 영적으로 세상에 더럽혀진 상태였다. 이 모습을 목격한 에스라는 이방결혼을 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로부터 이방결혼을 한 여인들을 모두 쫓아낼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된다. 그런데 에스라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정리한 후 깨닫게 된 것이 있었다. 그것은 성전을 재건해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결혼한 이방여인을 쫓아내도 안 되고 결국은 그리스도가 오셔야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즉, 예수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능력으로 충만하여 새것이 되었을 때 에스라처럼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인물이 우리 교회, 후대, 성도들, 중직자들 중에서 나올 줄 믿으시기 바란다.

오늘도 에스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붙잡을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Covenant, 언약이다. 에스라는 성경 전체를 언약과 복음의 관점으로 정리할 만큼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가 정리한 언약의 말씀은 수천 년 후의 후대까지 전해지고 있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이 언약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중직자들과 후대들과 함께 237 모든 나라와 족속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237센터와 RUTC성전 시스템을 우리 교회로부터 세워야 하겠다.

3. Dream, 꿈이다. 하나님이 주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위해 24시간 기도하며 연구하고 일도 하다가 25를 체험하고, 영원히 남는 일을 한 가지라도 남겨야 하겠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는 에스라처럼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해야 하겠다.

5. Practice, 실천이다. 에스라는 포로시대에 살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말씀연구에 집중하다가 구약성경말씀 전체를 정리한 최고의 공로자가 되었다. 이번 한 주간도 내가 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 기도, 진도를 실천하는 성도들과 램넛들이 되기를 축원드린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에스라서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들, 언약의 메시지들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포로시대의 남은 자들과 같은 성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 중에서 에스라와 같은, 나라와 민족과 시대를 변화시킬 주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RUTC 성전을 세우시고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문화와 분야를 바랄만한 응답과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